

## 21세기 중화민족주의의 부활과 중국연구

이문기(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 1. 중국연구에서 ‘역사’의 중요성

오늘날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21세기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의 성공에 기인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성공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성공의 결과로서 강대국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영역이다. 서구적 시각의 주류적 접근은 중국 부상의 원인 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강대국 중국의 국가정체성 역시 서구 국가의 근대화 경험과 강대국화의 길을 답습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자본주의적 제도와 규범을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 강대국 부상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의 접근은 중국 부상의 원인은 물론이고, 부상 이후의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역시 ‘개혁개방 이후 근대화 과정’의 맥락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서구 중심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이며, 중국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물론 현재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상당히 불확실한 과도기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대화론’ 접근이 갖는 설명도구로서의 유용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강대국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불확실하고 중국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일반이론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곧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서구적 경험과 이론만이 적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라는 경구가 일깨우듯이, 현실세계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언제든지 도전받고 바뀔 수 있으며, 중국의 부상은 기존 서구 중심의 이론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이라는 신흥대국의 부상이 지난 200여 년간 지구적 헤게모니를 행사해 온 서구 강대국의 부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데 있다. 중국은 불과 250년 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문화수준을 자랑하던 국가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이천 년 동안 단일한 정치공동체로서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의 위상을 유지했으며, 제국의 경험을 온전히 자신의 역사로 계승하는 현존하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만약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가 주도한 근대화와 근대성을 인류사 보편의 법칙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정 시기의 헤게모니로 이해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전혀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과거 영국이나 미국의 부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재부상’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한 것이다.<sup>1)</sup>

마틴 자크에 따르면,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서구인들에게 익숙한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제국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 오랜 역사와 제국의 경험을 들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네 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째, 중국은 불과 백 년 전에 국민국가가 형성되었지만, 중국인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5천 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형식은 ‘국민국가’이지만, 그 실질과 중국인의 인식은 ‘문명국가’라는 것이다. 둘째, 수많은 주변 민족과 문화를 융합하면서 이루어낸 중화 문명의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했고, 이는 서구적 경험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와는 그 뿌리가 다르다. 서구적 민족주의 개념으로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정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천하체계와 조공제도라는 독특한 세계질서를 운용했고, 그 경험은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넷째, 반복된 분열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단일성’을 유지해 온 특징이다. 강대국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서구의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이상의 주장은 결국 중국을 이해하는 열쇠가 ‘역사’에 있다는 것이다.<sup>2)</sup>

한편 강대국화 이후 중국의 미래가 서구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연설이라 할 수 있는 2013년 3월 전국인대 폐막연설에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식 발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한 3월 23일 취임 후 첫 번째 외국방문이었던 러시아의 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신발이 발에 맞는지는 신발을 신은 사람만이 안다’라는 비유를 통해, 중국식 노선의 견지와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간섭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서구적 국가모델과 다른 독특한 형태를 부단히 모색하고 있다. 대내적 측면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이른바 ‘중국식’ 정치개혁과 민주정치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sup>3)</sup> 학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중국모델론’ 역시 서구적 경험과 다른 중국식의 발전경험과 국가정체성을 의미한다.<sup>4)</sup> 또한 대외관계 측면에서도 자국의 기준과 가치규범을 견지하면서 세계전략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평화발전론’, ‘조화세계론’, ‘신형 대국관계론’ 등의 개념이 그렇다.

1) Frank, Andre Gunder(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국어판) 안드레 군더 프랑크 지음, 이희재 역(2003), 『리오리엔트』 서울: 이산; Jacques, Martin.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Penguin Press HC. (한국어판) 마틴 자크지음, 안세민 옮김 (2010),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키, pp.39-67.

2) Jacques(2009).

3) 조영남(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 pp.55-105; 이희옥·장윤미(2013),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사.

4) 전성흥 편(2010),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그렇다면 21세기 중국의 국가정체성에서 서구적 가치규범의 전면적 수용이 아닌, 중국적 특수성에 기초한 정체성 형성의 사상적 원천은 무엇일까? 정체성 형성이 행위자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특수한 속성과 자기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중국의 국가정체성 역시 중국의 전통 및 역사적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내에서 전통문화와 유가사상의 부흥,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의 과잉현상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전통시기 중화제국의 경험이 21세기 중국의 재부상과 국가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이미 서구의 제도와 규범을 수용하고 더 이상 제국이 아닌 근대 국민국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30여 년 개혁개방의 성공적 경험은 중국이 근대자본주의 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편전쟁 이래 중국이 서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중국이 서구를 만나는 방식은 ‘서구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면, 1978년 이후의 개방은 ‘중국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sup>5)</sup>

그렇다면 21세기 강대국 중국의 국가정체성은 결국 전통적 요인과 근대적 요인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중국의 국가정체성은 전통과 근대성에 의해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려는 지점은 역사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근대성의 맥락, 또는 개혁개방 이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중국의 부상’과 국가정체성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 2. 중국의 강대국화와 중화민족주의의 부활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냉전에서 탈냉전 시대로의 전환, 중국 국내적으로는 폐쇄적 계획경제에서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국내적 통치이념과 대외전략에서 큰 변화를 주었는데, 이런 변화 중 가장 미묘하면서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현상이 바로 민족주의의 부상이다.

1990년대 이후의 중국 민족주의는 20세기 초 대내외적 국가위기에서 구국과 변혁의 이념으로 출현했던 초기 민족주의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른 것이다. 근대 민족주의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응적·자위적

5) Qin, Yaqing(2010), "Struggle for Identity: A Political Psychology of China's Rise," Brantly Womack (ed.), China's Rise In Historical Perspectiv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249-270.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sup>6)</sup>(蕭功秦, 2000).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적 지위의 상승과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이 크게 증대되면서 공세적 민족주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sup>7)</sup> 즉, 20세기 초 민족주의는 국가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부국을, 정치적으로는 민주와 혁명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전통에 대한 극복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이념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민족주의는 강대국화의 결과로 출현한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공산당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정당성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적 지도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문화적으로 전통의 부활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문화국수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sup>8)</sup>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민족주의는 매우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는 복잡미묘한 현상이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최근 중국 민족주의를 어떤 하나의 특정 성격으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고, 외부 시각 뿐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 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컨대 행위주체 측면에서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측면에 주목하면 애국주의와 실용주의적 특성이 부각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주의적 측면에 주목하면 반서구적 국수주의와 중화주의적 특성이 부각된다. 또 대외관계의 행태적 측면에서도 최근의 민족주의가 중국의 패권적 혹은 공세적 정책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서구의 '중국위협론' 확산에 대한 반응적 차원이며 근대 이래의 반응적·자위적 민족주의의 특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국 민족주의를 주로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민족주의가 혼재되어 경쟁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첫째, 관변 중심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다. 이 시각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중국 민족주의 등장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통치이념 공백과 정당성 약화가 주된 배경이다. 중국공산당이 서구화와 다원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통합과 통치정당성 강화를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sup>9)</sup> 따라서 최근의 중국 민족주의는 대외관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목적론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대내적 통치위기를

6) 蕭功秦(2000), “中國民族主義的歷史與前景,” 李世濤 主編『知識分子立場: 民族主義與轉型期中國的命運』,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pp.472-482.

7) 余英時(2013), “民主與民族主義之間,” 『共識網』, <http://www.21cccom.net>, 2013년 12월 25일 검색.; Friedman, Edward(1995),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tic Prospects in Socialist China*, Amonk: M.E. Sharpe.

8) Wu, Guoguang(2008), “From Post-imperial to Late Communist Nationalism: historical change in Chinese nationalism from May Fourth to the 1990s,” *The World Quarterly*, Vol. 29, No.3, pp.467-482.

9) Zhao(2004); Zheng, Yongnian(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어판) 정용넌 지음, 송병철 옮김(2005), 『21세기는 중국의 시대인가: 민족주의, 정체성, 그리고 국제관계』, 과천: 문화발전소; 조영남(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

극복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더 주된 측면이다. 주로 관방담론을 통해 자주 표출되는데, 공식적 표현으로는 '애국주의 운동'이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과 같은 구호가 이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둘째, 중화주의적 민족주의다. 이는 19세기 중반 서구문명이 유입된 이후 중국 지식인과 지배층의 일관된 고민인 '전통과 현대' 담론에서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려는 일련의 지적 계보를 계승한다. 따라서 천하주의적 민족주의는 서구적 가치관과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전통사상의 핵심인 유가사상의 현대적 변용을 모색하려 한다. 유가사상과 전통문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화민족주의적 전통을 공유하고, 반서구 중국중심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종족민족주의 성격도 일부 공유한다. 그런데 최근 특별히 주목되는 지점은 이런 입장이 단지 유가사상의 우수성이나 민족적 우월의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사상과 천하주의 전통이 세계성과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셋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다. 이런 경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기초한 중화민족 공동체를 주장한다. 즉,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강화를 추구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나, 전통적 질서의 변용을 모색하려는 중화주의적 민족주의를 모두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집단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sup>11)</sup> 따라서 서구적 가치의 보편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이지만,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점차 비주류로 밀려나면서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

하지만 21세기 중국 민족주의 현상이 이상 세 가지 얼굴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중첩되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도 그 실질은 중화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1997년 제15차 당 대회이후 중국 지도부의 공식 언급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이나 최근 시진핑이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한 '중국의 꿈'은 한편으로 공산당의 통치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색채도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 중화주의의 현대적 변용의 의미도 갖는다. 천하주의적 민족주의도 한편으로는 전통과 유가사상을 강조하면서 관방의 국가통합 논리와 연결되기도 하고,<sup>12)</sup> 다른 한편으로 천하주의의 보편성과 세계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적 세계관과의 융

10) 盛洪(2000), “從民族主義到天下主義,” 李世濤 主編 『知識分子立場: 民族主義與轉型期中國的命運』,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pp.74-85; 趙汀陽(2005), 『天下體系』; (한국어판) 자오팅양 지음, 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서울: 길; 許紀霖(2012), “新天下主義,” 『共識網』, <http://www.21ccom.net>, 2013년 12월 25일 검색.

11) 秦暉(2000), “自由主義與民族主義的契合点在哪里,” 李世濤 主編 『知識分子立場: 民族主義與轉型期中國的命運』,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pp.381-388; 馮崇義(2012), “民族主義與當代中國的自由主義者,” 『共識網』, <http://www.21ccom.net>, 2013년 12월 25일 검색.

12) 康曉光(2002), “文化民族主義隨想,” 『Confucius 2000: 康曉光文集』, <http://www.confucius2000.com/confucius/whmzzyxsx.htm>, 2014년 4월 10일 검색.

합을 시도하기도 한다.<sup>13)</sup>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강화되면서 그 실체가 점차 노골화되는 21세기 중국의 민족주의는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 그리고 강대국화 이후의 공세적 성격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표출되고 있다.

### 3. 중국연구와 역사적 인과성

이 글은 21세기 중화민족주의가 전통적 중화주의 요소, 근대 혁명 시기의 저항적 민족주의 요소, 그리고 강대국화 이후의 자긍적·공세적 민족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얼굴의 민족주의는 역사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층화(layering)’되면서 구성된 것이다. 20세기 초 근대국가 형성과 혁명기의 민족주의는 전통적 요소와의 단절이라기보다는 근대적 민족주의 관념과 전통적 중화주의 요소가 중층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최근 강대국화 이후의 공세적 중화민족주의도 20세기 초 망국 위기에서의 반응적·자위적 민족주의를 대체(replacement)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아니라, 기존의 구성요소 위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중층적 전환이며 재배열(reconfiguration)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주장은 중국 민족주의 연구에서 전통, 근대, 현대의 세 시기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차별화된다. 중화민족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은 반드시 전근대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맥락의 연속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 글은 역사적 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이 기존의 민족주의와 새로운 민족주의가 단절적으로 대체되는 전환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성격이 포개지는 중층적 전환임을 강조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21세기 중화민족주의의 특징을 주로 개혁개방 이후 시기의 강대국화 과정(또는 근대화 과정)이라는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그 인과성을 밝히려는 작업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인의 역사인식과 국가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인 ‘중화주의’는 긴 시간적 맥락 속에 내재된 ‘역사적 인과성(historical causation)’에 주목하지 않으면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역사적 맥락과 역사적 인과성의 중요성은 비단 중국 민족주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주제에서도 동일하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

13) 許紀霖(2012), “新天下主義,” 『共識網』, <http://www.21ccom.net>, 2013년 12월 25일 검색.

## 현대 중국 지식인을 이해하기 위한 길 - 다름과 같음

: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를 읽는 평자의 관점

임상범(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 1. 현대 중국 지식인에 대한 평자의 기본적인 입장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고수하려는 지식인의 등장이 어려운 중국의 정치 환경과 그들의 지식인관을 고려할 때, 그들이 선전하려는 새로운 ‘보세적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sup>14)</sup>

### 2. 장례식 유머와 중국인

우리는 중국인들의 발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의도대로 그들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개석과 송자문을 제외하고 대체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말처럼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문명화된 인간처럼 일할 뿐이다. 중국 사람은 관직에 있을 때 (관직에 있고자 할 때)는 도덕을 설교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매우 훌륭한 도교적인 시를 짓고 있다. 즉, 인생이란 너무 많은 노력을 들여 귀찮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 장례식의 유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강 정책이나 공식적 성명서 등은 그럴 듯하고 과장된 어휘 구사에 능한 비서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장례식 때 쓰는 의상이나 도구들을 세 놓는 상점처럼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다. 중국의 지성인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외국 신문사 특파원이 이 장례식 가운이 상징하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중국인을 오해하기 쉬우며 결국 중국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포기하고 말 것이다.<sup>15)</sup>

### 3. 內聖外王과 그 실상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이 내세우는 말과 그 속내를 염두에 두어야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중국 지식인을 학파

14) 임상범, 「대국굴기의 미래, 제국 중국?」, 『중국학보』71, 2015.2.

15) 林語堂, 주요섭 역, 『임어당 전집2: 나의 조국 나의 겨레』, 휘문출판사, 1961.

로 나누는 필자의 방식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을까?

范仲淹(989-1052)이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종족을 위해 義莊을 만든 속내는 무엇일까? 文言薄(1006-1097)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황제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관리들과 함께 국가를 통치합니다.”<sup>16)</sup>

과연 몇 명의 명대 사대부가 출세보다 충신의 명성을 더 추구하였을까?

外王의 명분 : “당시 많은 사대부가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하지만 국가를 배신한 사대부는 없었다.”<sup>17)</sup> “황제의 인정이 만방에 미치고 문덕이 사방을 적시니, 여러 선비가 서로 격려하며 갑자기 두각을 나타냈도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시기에 부응하여 지금 우리 고향에는 많은 학자가 배출되고 있다.”<sup>18)</sup> 관료들의 딜레마는 유교의 숭고한 도덕적 가치보다 충신으로서의 의무에 더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sup>19)</sup>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공직에서 초연해지거나 완전히 물러나 ‘암전히’ 추구하라.(慧暎)

송 진종황제는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富家不用買良田, 書中自有千種祿. 安居不用架高堂, 書中自有黃金屋.  
取妻莫恨無良媒, 書中有女顏如玉. 男兒欲逐平生志, 六經勤向窓前讀.

집을 부하게 하려고 좋은 밭 사지 말라, 책 속에 저절로 천종의 봉록이 있다  
편안히 살려고 큰 집을 짓지 마라, 책 속에 저절로 화려한 집 있다.  
장가들려는 데 좋은 중매 없다 한탄마라, 책 속에 얼굴이 옥 같은 여자가 있다.  
사나이 평생의 뜻 이루려면, 육경의 경전을 부지런히 창을 향해 읽어라.  
(「眞宗皇帝 勸學文」)

#### 4. 사나이가 큰 뜻을 이루는 중국식 방법

##### A. 전통적인 방식의 사례 : 李賀(790-817)와 陳獨秀(1879-1942)

자신을 선전하기 : 李賀는 낙양에 와 있던 韓愈에게 17세 때 직접 시를 보내 큰 칭찬을 받았고, 韓愈가 河南丞으로 취임하자 河南府 府試에 합격한

16) 『續資治通鑑長編』221:5370.

17) 陸容, 『菽園雜記』

18) 汪道昆, 『太函集』

19) 티모시 브룩, 조영헌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2014, p.207.



다.(810)

黑雲壓城城欲摧  
角聲滿天秋色裏  
半捲紅旗臨易水  
報君黃金臺上意

甲光向日金鱗開  
塞上燕脂凝夜紫  
霜重鼓寒聲不起  
提攜玉龍爲君死

검은 구름 성을 눌러 성벽은 무너질 듯      달빛에 갑옷은 금빛 비늘 번쩍이네  
나팔소리 가을 하늘에 가득히 울려 퍼지고      새 위 연지 빛 피는 밤에 자색으로 영긴다  
반쯤 감긴 붉은 깃발 易水에 머무니      된 서리에 북소리도 얼어서 일지 않네  
황금대 위 聖上의 은혜 보답하리니      玉龍칼 빼어 들고 성상 위해 죽으리  
라<sup>20)</sup>

극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 1910년대 중반 상하이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陳獨秀는 『신청년』을 통한 격렬한 논쟁으로 전국적인 인물이 된다.

## B. 당대 지식인의 상

### (1) 신좌파의 대표자?

汪暉(1959- ), 양주사범대학 중문과 졸업, 사회과학원에서 루쉰 연구의 대가인 唐弢에게 사사하고 『學人』 잡지를 공동 출간, 이후 『讀書』 잡지의 주편으로 장기간 활약.

### (2) 흡수저의 튀기 전략?

鄧正來(1956-2013), 어린 시절 노동자였던 부모와 함께 장기간 쓰촨에서 살면서 四川外語學院을 졸업한 뒤 베이징에서 독학, 이후 스스로 잡지를 발간하여 ‘시민사회’, ‘학술규범’ 등의 다양한 논쟁을 주도하고 하이예크를 소개하면서 『中國法學向何處去』를 발표한 뒤 2008년에는 復旦大學의 교수가 됨.<sup>21)</sup>

### (3) 금수저의 고고한 삶?

楊念群(1964- ), 청말 명인 楊度的 증손자이자 梁啓超의 증외손, 인민대학 역사학과 졸업, 현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 부소장. 『유학 지역화의 근대 형태』, 『‘병자’의 再造』.

20) 이동향 역주, 『雁門太守의 노래』, 『李賀詩選』, 민음사, 1976.

21) 임상범, 『덩정라이와 사회과학논쟁』, 『사총』76, 2012.

## 5. 중국 지식인의 속내 읽기

연암 박지원의 연행록에 보이는 중국 지식인론 : 청대 한인 士人을 대하는 조선인의 관심은 그들의 화이사상의 실상과 주자학의 쇠락에 대한 것이었다. 燕巖의 결론은 신사의 사회적 지위가 왕조를 초월하는 면도 있는 반면, 제도적으로는 당대의 왕권에 의하여만 부여되고 옹호된다는 士人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지식인은 연암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위 의리라는 것은 고금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에 적응하는 유동적인 것이다.”<sup>22)</sup>

공자의 고민 : 子曰, 始吾於人也에 聽其言而信其行이러니, 今吾 於人也에 聽其言而觀其行하노니<sup>23)</sup> 공자가 말하길; 처음에 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도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 6. 현대 중국이 당면한 과제

### A. 과거의 경험 : 당송시기 변혁과 대응

사회경제적 변혁에 직면해서 개인/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불교의 사례 :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일은 믿을 만하기도 하고 증거도 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에 귀의할 마음이 있었으니 경솔히 하거나 태만히 하지 않도록 하라.”<sup>24)</sup> “중생의 온갖 계행은 공(空)으로 귀결되는 것이며, 그 응변의 재주와 지혜가 요, 순, 주공, 공자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불교(內敎)와 유가(外敎)는 본래 하나였으나 점차 차이가 생겼고 깊이가 다르다. 주공과 공자를 존중한다고 불교의 종지를 배반한다면 이 역시 얼마나 미혹한 일이겠는가!”<sup>25)</sup> “사시의 제사는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이다. 효도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불경에서 이를 찾아보면 실제로 아무런 이익도 없다. 만약 부모의 끝없는 덕을 보답하고, 슬픔이 북받치거든 때때로 제공하되 7월 보름의 우란분을 잊지

22) 민두기, 「〈熱河日記〉에 비친 淸朝의 漢人統治策」, 『중국근대사연구』, 일조각, 1973.

23) 『論語』, 「公治長」九

24) 「歸心」 163

25) 「歸心」 164

않기를 바랄 뿐이다.”<sup>26)</sup>

송대 신유학의 의미 : 修身濟家治國平天下

#### B.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에 직면한 중국 지식인의 과제

저자 : 중국의 성공 여부는 지식인이 국가와 어떻게 비판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서구 지식 체계를 얼마나 상대화해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208) 서양을 견제한다는 구실로 다시 중국 중심주의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231)

평가 : 새로운 물질적 삶의 조건에 직면하고, 그에 따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중국은 개인과 공동체 각각의 재정립과 그 상호관계의 재구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

26) 「終制」 255 / 顏之推, 임동석, 『안씨가훈』, 고즈원, 2004.